

#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남영<sup>1</sup> · 김현지<sup>2</sup> · 김명희<sup>3</sup>

<sup>1</sup>강릉영동대학교, 부교수 · <sup>2</sup>송호대학교, 조교수 · <sup>3</sup>강릉영동대학교, 교수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for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on empathy ability

Nam Young, Choi<sup>1</sup> · Hyun Ji, Kim<sup>2</sup> · Meong Hee, Kim<sup>3</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Songh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4권 제1호 2020년 3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4, No. 1, March 2020



#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남영<sup>1</sup> · 김현지<sup>2</sup> · 김명희<sup>3</sup>

<sup>1</sup>강릉영동대학교, 부교수 · <sup>2</sup>송호대학교, 조교수 · <sup>3</sup>강릉영동대학교, 교수

## The effect of the perception for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on empathy ability

Nam Young, Choi<sup>1</sup> · Hyun Ji, Kim<sup>2</sup> · Meong Hee, Kim<sup>3</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Songho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 Yeongdong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perception for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on empathy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 2018 to December 20, 2018. 105 nursing students who lived in the G city were recruited. 94 among 105 questionnaires answered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It was then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Results** : The participants' empathy ability and perception for importance of communication prove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r = .60, p < .001$ ). The participants' empathy ability also had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mmunication self-efficacy( $r = .55, p < .001$ ). The research shows that the perception for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a = .42, p < .001$ ), communication self-efficacy( $\beta = .33, p < .001$ ) can determine empathy ability to a degree of 46.3%. **Conclusion** : It is necessary that empathy ability should be enhanced referring to perception for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in nursing communication education.

**Key words** : Empathy, Self-Efficacy, Communication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임상실습 시 환자 및 간호사, 타 부서 직원 등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돌봄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1]. 또한 공감능력은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타인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임상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2]. 환자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공감하지 않는 간호사에게 거리감을 느끼며[3] 자신을 감정적으로 이해해주는 공감능력이 높은 간호사에게 간호를 제공받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4]. 이처럼 공감능력은 양질의 간호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공감능력의 향상은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간호사의 삶의 만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6]. 간호대학생의 경우 졸업 이후 임상에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에서의 간호교육에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방법에 의한 훈련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Bandura[7]에 의해 제안된 ‘자기효능감’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정의된다[7]. 실제적 의사소통 기술의 훈련은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간호수행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다[8].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간호실무에 있어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해 간호대학생 때부터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반복교육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8,9]. 이처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치료적 관계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호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과 관련하여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

는 많지 않았다. 간호대학생은 의사소통에 대한 실제적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간호사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도 또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간호대학에서는 의사소통 관련 수업 및 임상실습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핵심자질인 의사소통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대학생들은 학습한 의사소통 기술을 임상영역에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9]. 그러므로 임상영역에서 적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Jung[10]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 학생들이 실습을 경험하기 이전인 2학년 학생들에 비해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임상실습동안 다양한 대상자와 의료진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실제로 체험할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궁극적으로 임상에 적용하기 이전에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저학년의 의사소통 교육에서부터 의사소통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10]. 또한 Rees 등[11]도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는 학생의 기대, 선호도 등 배우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12]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그 동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의사소통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교육 이후 학생의 공감능력의 증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직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이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이처럼 간호대학생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그리고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정도와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공감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이에 따른 공감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

## Ⅱ.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대학의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한 20세에서 34세의 남녀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

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방법과 예측요인 3개를 고려하고, 유의수준  $\alpha$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5로 하여 필요한 표본 수를 산정한 결과 87명의 대상자가 산출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105부 모두 회수되었다. 그 중 응답이 성실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설문 11부를 제외한 94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Rees 등[11]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의사소통 태도의 평가 척도 중 중요성 인식 평가 척도를 Oh[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의사소통에 대한 가치인식, 학습양식, 학습에 대한 지속적 노력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식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음을 나타낸다. Oh[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2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7이었다.

#### 2)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arson[13]이 개발한 상담자 자기평가 질문지(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 COSE)를 Park[1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7 문항으로 구체적 의사소통 기술, 상담과정, 어려운 환자 행동 다루기,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능력, 가치에 대한 자각으로 5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식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1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7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89이었다.

### 3) 공감능력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LaMonica [15]이 개발한 Empathy Construct Rating Scale(ECRS)을 Choi[1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7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Likert 식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i[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6$ 이었다.

### 4. 자료수집 방법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G시 소재 G대학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대학교의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문 전 대상자에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과정, 대상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참여를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과, 중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를 모두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의 소요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였다. 참여자에게는 약 2,000원 상당의 문구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Independent sample t-test와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으며, 공감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본 연구의 대상자는 94명 중 여학생 81명(96.2%), 남학생 13명(13.8%)으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은 20~25세가 80명(85.1%)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학생이 59명(62.8%)로 나타났다. 성별에

Table 1. Empathic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94)

Characteristic	Category	n(%)	Empathic Ability	t or F	p
			M $\pm$ SD		
Gender	Male	13(13.8)	5.04 $\pm$ .70	2.02	<.001
	Female	81(96.2)	4.40 $\pm$ .50		
Age	20~25	80(85.1)	4.45 $\pm$ .53	0.82	.443
	26~30	8(8.5)	4.71 $\pm$ .78		
	30~34	2(2.1)	4.58 $\pm$ 1.09		
Religion	Christian	20(21.3)	4.55 $\pm$ .58	1.07	.364
	Catholic	6(6.4)	4.80 $\pm$ .64		
	Buddhism	6(6.4)	4.37 $\pm$ .55		
	None	59(62.8)	4.42 $\pm$ .56		

따른 공감능력은 남자 5.04(±.70)점, 여자 4.40(±.50)점으로 남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 2. 대상자의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96(±.66)점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86(±.48)점, 공감능력은 6점 만점에 평균 4.46(±.56)점이었다(Table 2).

## 3. 대상자의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및 공감능력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60, p < .001$ ). 또한 공감능력과 의사

소통 자기효능감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55, p < .001$ )(Table 3).

## 4.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입력(Enter)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2.10으로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었고, 공차한계(Tolerance)와 VIF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0.1이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값이 1.20~1.22으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형의 선형성(Linearity), 오차항의 정규성(normality),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이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

Table 2. The Level of Study Variables

(N = 94)

Variable	M±SD	Min	Max
Perception for Importance of Communication	4.96±.66	3.42	6.76
communication Self-Efficacy	3.86±.48	3.08	5.78
Empathic Ability	4.46±.56	3.33	5.83

Table 3. Correlations with Empathic Ability, Perception for Importance of Communication, Communication Self-Efficacy (N = 94)

	1	2	3
		r(p)	
1. Empathic Ability	1		
2. Perception for Importance of Communication	.60(< .001)	1	
3. Communication Self-Efficacy	.55(< .001)	.39(< .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Empathic Ability

(N = 94)

Variable	B	S.E.	$\beta$	t	p	VIF	$R^2$	Adj $R^2$	F(p)
(Constant)	126.49	47.38		2.67	.009				
Perception for Importance of Communication	1.14	0.23	.42	4.92	.000	1.20	.481	.463	26.29 (< .001)
Communication Self-Efficacy	0.84	0.22	.33	3.81	.000	1.22			

하기 위해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성별과 의사소통 중요성,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명력은 46.3%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beta = .42$ )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beta = .33$ )이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 IV. 논 의

본 연구는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다.

대상자들은 의사소통 교과목을 통해 의사소통의 중요성 및 기술들을 교육 받은 간호대학생으로,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은 7점 만점에 평균 4.96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에 대해 조사를 한 Oh[9]의 연구에서 의사소통 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학생의 평균 5.04점보다는 낮게 나타났지만 의사소통 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학생의 평균 4.41보다는 높게 나타나 의사소통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해야 하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졸업 이후 임상현장에서의 원활한 치료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점수는 6점 만점 중 평균 3.86점으로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5.53점[14],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4.05점[17] 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경우 아직 임상실습의 짧은 시간을 제외하면 간호현장을 접해보지 못했고 아직까지 대상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해

석된다.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간호사의 의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14]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판단을 내릴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상승시켜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평가 요소인 공감능력에 대한 점수는 6점 만점 중 평균 4.4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i[16]의 연구에서 일반병동 간호사의 공감능력 4.49점과 유사한 연구결과이지만, 정신과 병동 간호사의 공감능력 점수 4.76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은 환자와 치료적 관계 형성에 필수적 조건으로, 환자와 치료진 사이에서 치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18]. 또한 공감능력은 간호사에게 우선시 되는 필수적인 것으로 환자의 감정에 대해 지각하고 반응하는 한 형태이며 비합리적인 측면의 이해까지도 포함하는 의사소통기술이라고 하였다[10].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의 공감능력은 간호중재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 요소를 확인하여 이를 임상경험 및 훈련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각 변수별 상관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의 상관관계는 .60로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자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고[9],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자기 인식 정도가 높아진 경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19,20]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공감능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다양한 대상자를 통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에 의사소통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55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ark[14]의 정신병동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공감능



력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공감능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치료적 관계가 증진되고 양질의 간호제공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Julia와 Theodore[4]는 환자가 감정적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공감능력이 높은 간호사에게 간호를 제공받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며 간호사의 공감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이 향후 임상실습 과정과 졸업 후 간호 실무에 있어 치료적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함양하고 대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각 변수별 상관관계의 마지막 변수 관계인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39로 나타났다. Seo[21]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간호사의 경우 의사소통에서의 자기효능감이 높고, 이러한 간호사들은 지속적 교육에 적극적인 경우가 많음을 설명하였다. 이는 의사소통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요구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증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구를 증가시키며 이는 스스로의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공감능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감능력이 높아진다는 Yeo[22]의 연구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Kim[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공감능력의 관계는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유사개념인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요구도와 공감능력의 관계나, 자기인식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그 맥락을 찾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

사들이 학습이 주는 의미와 학습의 성과를 크게 느끼는 경우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며 [24], 간호사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21].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또한 공감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고[9], 자기 인식 정도가 높아진 경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19,20]을 함께 고려해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및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경우 의사소통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사소통 기술 중 핵심기술인 공감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입시 위주의 생활을 하던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이들에게 효율적인 대학생활에서 대인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요소일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전공교과목 지식 습득이 첫 번째 중요 요소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간호 실습 환경과 졸업 후 의료 현장에서 공감능력은 간호활동의 능률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특히 졸업 이후의 의료 현장에서 이러한 공감능력은 효율적인 의료행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간호대학생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임상실습 환경에서 높은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공감능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학생활 적응, 간호 실습 및 임상 적응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간호제공을 위한 공감능력 함양을 위해서 간호대학생의 특수성이 고려된 다양한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더 효율적인 공감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은 7점 만점에 평균 4.96점, 자기효능감은 6점 만점에 평균 3.86점, 공감능력은 6점 만점에 평균 4.46점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공감능력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은 공감능력을 46.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시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나아가 전반적인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통한 양질의 간호제공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본 연구는 일개 대학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표집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 및 전체 학년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 교육을 받기 전·후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간호대학생 스스로 판단한 공감능력과 환자들이 간호대학생에게 느끼는 공감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중요성 인식과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1. Jeong HS, Lee KL. Empath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9): 6044-6052. <http://dx.doi.org/openlink.khu.ac.kr:8080/10.5762/KAIS.2015.16.9.6044>
2. Kim JH. Factors influencing nursing students' empathy.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8; 30(3):229-236. <https://doi.org/10.3946/kjme.2018.97>
3. Morse JM, Bottorff J, O'rien B, Solberg S. Beyond empathy: expanding expressions of car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6;53(1):75-87.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6.03677.x>
4. Williams J, Stickley T. Empathy and nurse education. *Nurse Education Today*. 2010;30:752-755. <https://doi.org/10.1016/j.nedt.2010.01.018>
5. Brunero S, Lamont S, Coates M. A review of empathy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Inquiry*. 2010; 17(1):65-74. <https://doi.org/10.1111/j.1440-1800.2009.00482.x>
6. Kim HJ, Yi MS.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 21(2):237-245.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2.237>
7.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1977;84: 191-215.
8. Jeong CY, Seo YS. Effect of the convergence communication training program for communication self efficacy,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5):271-280. <http://dx.doi.org/openlink.khu.ac.kr:8080/10.14400/JDC.2017.15.5.271>
9. Oh YJ.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

- [dissertation]. Seoul: Korea University; 2008. p.1-146.
10. Jung MY, Bae JY. Educational needs of communic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19;28(1):91-101. <https://doi.org/10.12934/jkpmhn.2019.28.1.91>
11. Rees H, Sheard C, Davies S. Th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communication Scale(CSAS). *Medical Education*. 2002;36:141-147. <https://doi.org/10.1046/j.1365-2923.2002.01072.x>
12. Ayeres HW.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dissertation].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005. p.1-310.
13. Larson LM, Suzuki LA, Gillespie KN, Potenza MT, Bechtel MA, Toulous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92;39(1):105-120. <https://doi.org/10.1037/0022-0167.39.1.105>
14. Park HJ. Counseling self-efficacy and empathic ability of the psychiatric nurses [master's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12. p.1-71.
15. LaMonica EL. Construct validity of an empathy instrument.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981;4:389-400. <https://doi.org/10.1002/nur.4770040406>
16. Choi MJ. A comparative study on the empathic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of psychiatric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master's thesis]. Seoul: Kyung Hee University; 2005. p.1-59.
17. Hong Sh, Choi HR. Contribution of counselor self-efficacy and atate-anxiety to the working alliance in the early stage of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1;13(1):31-49.
18. Larson EB, Yao X. Clinical empathy as emotional labor in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Th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5;293(9):1100-1106. <https://doi.org/10.1001/jama.293.9.1100>
19. Im SB. Communication education in nursing: To promote self-awareness. *Korea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06;1(1):59-66.
20. Han KS, Park YJ, Kim KM, Oh YJ, Jin JH. Communication style, self efficacy, emotional regulation, and ways of coping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8;17(1):28-34.
21. Seo SK. A study of communication ability and self-efficacy depending on types of nurses' conflict management [master's thesis]. Suncheo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5. p.1-60.
22. Yeo MO. Relationships of self-efficacy and empathy to flow in children's learning [master's thesis]. Seoul: Dankook University; 2011. p.1-63.
23. Kim JH. Factors influenc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ranslation Research in Nursing; 2016 October 19; Seoul.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4. Seo HK. The effects of bachelor's degree education on clinical nurses' self-efficacy, professionalism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master's thesis]. Daejeon: Eulji University; 2015. p.1-64.